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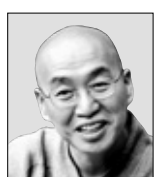
제7회 오대산 전국 디지털사진 공모전...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오대산 전국 디지털사진 공모전 을 개최 한다.



조계사 삼오모텔 인수식...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3월 7 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성역화불사 일한 삼오모텔 인수식을 개최했다.



실천승가회 집행위원장 증호 스님... 인천 영산정사 주지 정호 스님은 3월 2일 실천승가회 제15차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평화 리더십 아카데미...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서초동 평화재단 교육원에서 평화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동산불교대 34회 졸업식... 안동일 동산불교대 이사장은 2월 27일 동산불교대 34회(졸업79명), 대학원 25회(5명) 졸업식을 개최했다.



포교사단 11주년 기념법회...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3월 13일 김천 직지사서 포교사단 11주년 기념법회 및 제16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정구정 중앙신도회 지도위원(불교한경연대 감사)은 2월 28일 한국세무사회 제27대 회장에 당선됐다.

■〈인사〉 정련 스님, 동국대 제37대 이사장 재선출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의 제37대 이사장에 정련 스님이 재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3월 2일 제 261회 이사회를 열고 현 이사장 정련 스님을 만장일치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정련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족한 저를 유임해줘 감사하다"며 "신임총장을 잘 보필해, 부족하지만 학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련 스님은 1968년 부산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조계종 포교원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이사,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고객보다 직원부터 만족

민 응 기 동국대 제2대 의무부총장겸 제13대 동국대의료원장



해 볼만 한 거죠. 이제는 걱정보다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만 남았습니다.

지난 1년 민응기 원장은 교수나 직원들에게 자립 할 때까지 인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의료원의 재정 상태를 공유했다. 직원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살림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시에 성장한 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갈 것임을 약속했다.

민응기 동국대 제2대 의무부총장 겸 제13대 동국대의료원장이 3월 3일 취임 1년 만에 재입됐다.

"보직을 맡는 것은 궁극적으로 봉사이고 희생입니다. 명예를 위한 것이나 재물을 쌓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1년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교직원과 의료진 모두에게 참 고맙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2010년 3월, 취임 1년 만에 일산 동국대병원 2010년 상반기 흑자에 돌입했다. 지난해 약 20억 흑자를 내면서 도약 단계에 진입했다.

"그동안 기초공사를 한 것입니다. 최종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경산 수치 흑자로 돌아섰으니 이제

민응기 원장이 말하는 가장 훌륭한 운영기조는 직원들의 만족, 내부 만족 이 최우선이다. 모든 직원이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해 직원의 만족감을 높인다면 결국 일의 효율은 물론 모든 서비스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내부 만족은 우수인력 유치와도 관계가 깊다. 민응기 원장은 "외부에서 완벽한 실력을 갖춘 이는 한 가족이 되기 힘들다. 또 조건이 좋은 곳으로 눈을 돌리기 쉽다"며 "우수인력 확보는 자체 양성이 되어야 한다. 업무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었을 때 이직하지 않도록 만족감을 줘야 한다"고 했다.

"길게 보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직원간의 화합입니다. 병원 시스

템상 진료와 행정파트 화합은 어렵습니다. 종교를 통한 화합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법인이 세운 병원이 자칫 영리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려도 되지만 민응기 원장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세운 병원이 아니지만 일단 자생적으로 살림을 할 정도는 돼야 한다. 살림을 잘하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사업, 교육,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의료원은 특성화 사업으로 양한방 협진 강화는 초창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양에서는 대체 보완의학 연구가 한창입니다. 자연적인 처방과 치료에 관심을 갖고 동양의학, 한방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한방 협진으로 한방의학의 재활과 동시에 동국대의료원만의 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국대 의료원은 내부적으로는 양방 한방 교수가 함께 하나의 주제로 연구를 하면 협진 연구비 등으로 연구를 독려 하고 있다.

"양한방 협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한방이 단번에 한마음으로 운영되기는 힘들죠. 서로가 서로에게 차츰차츰 얼마

나 젖어 들어갔다가 중요합니다."

동국대의료원은 '불교' 병원이다. 민응기 원장은 사람들이 '불교'라는 이미지가 주는 벽을 허물고 싶었다. 이에 작년부터 스님 뿐 아니라 신부, 수녀, 목사 등 이웃 종교인들이 병원을 이용하면 최대 25%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조계종 종립병원이지만 이웃종교 기도실도 마련해 진정한 불교의 자비와 포용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밖에 불교호스피스를 체계화하고 전문기를 조직화할 계획도 잡고 있다. 민 원장은 "암 말기 환자 등 임종 직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가톨릭 등 이웃종교 호스피스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1977년 서울대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일병원 산부인과 과장, 함춘여성클리닉 대표원장, 보건복지부 인공수정전문의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일산병원 산부인과 진료부장 등을 역임했다.

[캠페인에 앞서] 미안마문화원 캠페인 인터뷰-한·미안마 교류친선협의회 공동회장 목탁 스님

“미안마의 밝은 웃음, 직접 느껴요”



"미안마 국민 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밝은 미소를 잊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 나라에 한국 불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목탁 스님은 "해운 회사에서 미안마 선원을 우선 채용하는 사실만 봐도 그들의 성실성을 알 수 있다"며 "마치 60년대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미안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교육 지원 등의 자비의 손길은 절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러한 취지에서 미안마 현지에 2년제 대학인 한국기술대학을 건립 중에 있다. 한국기술대학은 양곤에 5만 평 규모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1월 착공했다. 완공 후에는 한국·영어·일어 등 외국어와 컴퓨터·자동차·봉제 기술 등 실용기술을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가르치게 된다.

스님은 "진정한 보살행은 스스로 실천하고 직접 느끼는 것"이라며 "미안마 현지 봉사에 동참한 한국 불자들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의 이런 신념 하에 한·미안마교류협회 여성봉

사단은 신부외식 지원과 우물파기에 직접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극빈지역에 고아원을 운영하다보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었다"고 말했다. 양부모 맺기는 미안마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한국의 양부모들과 사진과 편지를 교환하며 돕게 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끝으로 "미안마에는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다. 불자들의 자비심으로 먼 미래 미안마와 한국은 동반자로 함께 걸어갈 그 날을 위해 앞장서자"며 후원을 당부했다. (02) 733-5670

스님은 "극빈지역에 고아원을 운영하다보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었다"고 말했다. 양부모 맺기는 미안마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한국의 양부모들과 사진과 편지를 교환하며 돕게 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끝으로 "미안마에는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다. 불자들의 자비심으로 먼 미래 미안마와 한국은 동반자로 함께 걸어갈 그 날을 위해 앞장서자"며 후원을 당부했다. (02) 733-5670

〈인사〉 동국대 인사

김희욱 동국대 총장은 3월 1일자로 동국대 인사를 단행했다.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

▷ 학술부총장 겸 대학원장 박정극 ▷ 경영부총장 조성구 ▷ 연구경쟁력강화위원장(부총장급) 김태원

〈각 대학원장 및 대학장〉

▷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계한 스님 ▷ 문과대학장 김상현 ▷ 이과대학장 김득영 ▷ 법과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김상겸 ▷ 행정대학원장 겸 경찰사범대학원장 겸 사회과학대학장 송일호 ▷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유석천 ▷ 바이오시스템대학장 유병승 ▷ 공과대학장 겸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장 이의수 ▷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고진호 ▷ 영산대학원장 겸 영산미디어대학장 이종대 ▷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장 김홍록 ▷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 김무근 ▷ 약학대학장 전문우

〈각 대학원 부원장 및 대학 부학장〉

▷ 불교대학원 부원장 겸 불교대학 부학장 김용표 ▷ 행정대학원 부원장 겸 경찰사범대학원 부원장 겸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박명호 ▷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김대룡 ▷ 경영대학 부학장 박찬규 ▷ 바이오시스템대학 부학장 성경석 ▷ 공과대학 부학장 겸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부단장 이지호 ▷ 교육대학원 부원장 겸 사범대학 부학장 겸 사범대학 교직원부장 채재성 ▷ 약학대학 부학장 조정숙

〈본부장 및 기관장〉

▷ 정각원장 법타 스님 ▷ 경영관리실장 이영면 ▷ 전략홍보실장 윤재용 ▷ 대외협력본부장 정창근 ▷ 전략기획본부장 이상일 ▷ 학사지원본부장 유국현 ▷ 연구진흥본부장 겸 산학협력단장 이종태 ▷ 사업개발본부장 위태량 ▷ 입학처장 이윤호 ▷ 운영지원본부장 이천중 ▷ 학생경력개발원장 겸 학생상담센터소장 이학노 ▷ 교양교육원장 조상식 ▷ 중앙도서관 박경준 ▷ 국제화추진단장 김인재 ▷ 정보관리실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안종석 ▷ 평생교육원장 김계현 ▷ 대학스포츠실장 백경선 ▷ 동국미디어센터장 김애주 ▷ 박물관장 최응천 ▷ 보건소장 김동일 ▷ 학술원 관리소장 강호덕 ▷ 바이오원생태농장장 이명훈

〈인사〉 금강신문

△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정산 스님 △ 편집인 겸 사장 무원 스님

원여불교의식(법음, 범패)교육원모집

교직자(포교사, 전법사) 전문교육원

본 원여불교 전법포교사단 부속 원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님, 법사, 포교사, 교양대학 수료자를 위한 대법사 양성 제 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강 주 | 보광스님 : 전등사 (구 보타원) 회주 부산불교연합회 고문
자인스님 : 길상사주지,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성각스님 : 흥은사주지 (은사스님에게 범음범패 20년 이수)
성림스님 : 관음사주지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사무국장 이사 및 범패 전수 조교)
- 입학자격 | 본 원여불교 전법포교사단 부속 원여불교의식 교육원은 중단을 초월하여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스님 포교사전법사 불교교양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함
- 특 전 | ○ 본 교육원수료후 성적우수자는 부산영산보존회 범패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함
○ 각 종단에서 불교의식을 주관하도록 함
○ 본 교육원 승려후보생 종단등록 및 포교원(사찰) 창건의 자문에 응함
- 모집학과 | 기본과정(6개월) : 사물(요령목탁) 다루는 법, 송, 상단, 각단 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중급과정 (1년) : 제반의식(불공, 범음, 범패) 사물다루는 법, (광시 징 법고) 대령 관속 각종시식 실천(實傳)위주
작법과정 (1년) : 바라작법 오공양작법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원서대 및 전형료 | 십이만원정 (120,000원)
- 수 강 료 | 무료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 모집기간 | 불기 2555년 3월 10일 (음 2월 6일) ~ 3월 20일 (음 2월 16일)
- 입 학 식 | 불기 2555년 3월 30일 (음 2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 강의장소 | 전등사 (구 보타원) 큰법당
- 강의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처 | 전등사 (구 보타원 1층)
- 원서배부처 | 부산지역 : 전등사(구 보타원) (051) 243-0048
부산불교연합회 (051) 867-0501
현대불교신문부산지사 (051) 632-0064
수효사(부산기장) (051) 727-1326
경남지역 : 세심정사(합천) 011-822-6946
경북지역 : 미타사(대구수성) (053) 767-7900
울산지역 : 쌍암사(울산아음동) (052) 275-7875

원여불교 전법포교사단 불교의식 교육원

주소 : 부산 서대신동 3가 578번지 전등사 (구 보타원) 051)243-0048 H·P 011-822-6946

명예총재 : 암도(여산) 보광(석성)

총재 : 향과(도림), 단장 : 법민, 부단장 : 자인, 사무총장 : 성월(혜명), 사무국장 : 진호(박도환), 재무국장 : 성덕(정상만)
자문 : 현광(보리), 신통(정허당), 설적은, 만정, 달오, 고담, 태일 운영 : 법연(혜연), 지산(진성태), 해봉(강경중), 무심(현익재)